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6 Number 08 **8** 2018



4차 창조과학탐사. 세도나에서

창조과학탐사 400차 넘기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합동신학원 신학생 팀으로 창조과학탐사가 400차를 넘겼습니다. 2000년 2월 이재만 회장이 인도하는 첫 창조과학탐사를 시작으로 약 18년 만에 400번이, 횡수로 따지면 매년 평균 20회 이상 진행된 것입니다. 첫 해에는 3회로 시작하여, 다음 해에 5회로 점점 증가하다 최근 몇 년부터 매년 30회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석자들을 모두 합치면 약 15,000명에 달합니다.

첫 창조과학탐사는 당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했던 ANC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부산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진소 목사님께서서 담임으로 계실 때, 유 목사님을 비롯하여 총 33명이 첫 창탐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 2년 간은 그랜드 캐니언, 세도나, 규화목 공원 중심의 3일 스케줄로 진행되다가, 2002년부터 미국의 타주에서 참석하며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이 추가되면서 일정이 4-5일로 길어졌습니다.

또한 2008년 데스 밸리와 요세미티를 경유하는 빙하시대가 추가되며 기존의 창조와 홍수 심판으로 국한되었던 내용이 더 확장되었고 기간도 일주일 이상으로 길어지며 탐사 내용의 깊이와 너비가 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창조과학탐사의 특징은 무엇보다 성경과 과학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버스에 타기 시작하면 세미나, 비디오 시청, 경유지 강연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적 증거들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때 수십억 년의 진화 역사로 바라보는 사고에서 벗어나 창조, 홍수심판 등 성경 기록이 사실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강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언



5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규화목 공원에서

제든지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궁금증을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탐에서 빠질 수 없는 장점은 직접 그 증거들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세미나의 경우 사진이나 글로만 접하지만, 창탐에서는 오감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그 규모나 모양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

로 다가오게 됩니다.

창조과학탐사는 그 동안 지금 광고 없이 모집해왔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의 추천으로 다음 창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 뿐 아니라 목회자, 대학 교수진, 대학생, 유학생팀, 중고등학교, 신학교, 신학자, 신학대학교 총장단, 의료인, 언론인, 기업인 등 다양한 단체가 참석해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과 함께 진화론이 교회와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공감했습니다. 창탐을 통해서 변화된 몇몇 분들에 의해 또 다른 창탐 한 팀이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어느 때보다도 창조과학탐사 예약이 빨리 잡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바쁜 양상은 최근 한국 교회에 퍼지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 등 타협이론의 바람이 거세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창탐을 참석했던 분들이 최근 등장한 타협이론의 실체를 보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진화론으로 물들어 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타협이론의 위험성을 강조해도 피부에 크게 와 닿지



40차 창조과학탐사. 세도나에서

않았지만, 이제는 훨씬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론의 등장이라는 '위기'가 창탐을 통해 오히려 '기회'로 된 것입니다. 한어 뿐 아니라 영어권 창탐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진화론적 교육으로 인해 성경의 권위가 마음에서 사라지는 이민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창탐이 성경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과학탐사는 단지 창조과학선교회의 하나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화론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가 현 상태를 파악하고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성경 말씀(Bible), 피조물에 나타난 과학적 증거(Evidences), 진화론이 미친 사회적 영향(Fruits) 등의 분야를 폭넓게 다루며 어떤 프로그램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또한 각 분야가 통일성 있게 정리됩니다.

창조과학탐사가 매회 진행될 때마다 이와 같은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참석자들 가운데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유학생, 신학생, EM, 교수진, 목회자 창탐 등 후원을 통해 특별한 창탐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헌신된 다음 세대 창조과학 사역자들이 등장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의 사실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창조 첫날부터 넷째 날 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 첫 절이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아무 것도 없는 무(empty)로부터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earth)을 창조하셨다(창1:1)고 선포하고 있다. 이어 다음 구절에서 물질은 아직 그 형태가 결정되지 않았고 공간도 비어있는 상태임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고에너지로 생각되는 깊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창1:2)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다(창1:3). 여기서 빛은 가시-불가시 전 영역의 빛으로 빛 자체를 의미하며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근본 에너지로 이해된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물질세계를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 모두 활성화되고 그 형태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가시 영역의 빛을 모으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분리)하시고 빛을 낮(day)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night)이라 부르셨다(창1:4). 그리고 지구를 자전하도록

돌려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하여 첫날을 이루셨다(창1:5).

성경구절	핵심단어	요 점
창 1:1	하나님(엘로힘) 창조(바라) 시간+공간+물질(Earth)	성부+성자+성령 삼위의 하나님 무에서 유 서로 연합됨(분리불가)
창 1:2	물질(Earth) 무형(formless) 공허(void or empty) 깊음(the deep)	아직 무형의 상태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내용물이 없는 상태 매우 어둔 고 에너지로 추정
창 1:3	빛(light, 오르)	가시-불가시 전 영역의 빛 자체.
창 1:4	빛(light) 어둠(darkness)	가시영역의 빛을 모으고, 빛과 어둠을 나눔
창 1:5	낮(day) 밤(night) 저녁(evening) 아침(morning) 날(day)	빛을 낮으로 지칭 어둠을 밤이라 명명 지구를 돌려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하여 날(하루)을 결정하심

창조 둘째 날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도록 물과 물을 나누시었다(창 1:6). 이 때 하나님은 궁창을 서서히 넓혀서(당겨서) 뻣뻣한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은 궁창을 계속 당기시므로 물 가운데 궁창이 넓어지고 있었고 궁창 위의 물은 계속 밖으로 밀려나 우주 밖으로 향하게 되었고 궁창 아랫물은 지표수가 되었을 것이다(창1:7).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궁창을 넓힌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이며 이는 계속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고 지구가 계속 돌고 있으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둘째 날이 되었다(창1:8).

창조 셋째 날 하나님은 궁창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물(마른 땅)을 드러내셨다(창1:9). 그리고 드러난 물을 땅(육지 land)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seas)라고 명명하셨다(창1:10). 이어서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각종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은 나무를 내도록 명하셨다(창1:11-12).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셋째 날이 되었다.

창조 넷째 날 하나님은 둘째 날 시작하여 충분히 넓혀진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빛을 내는 물체)를 만들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계절과 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셨다(창1:14).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창1:15). 여기서 큰 광명체는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창1:16), 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창1:17),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창1:18).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넷째 날이 되었다(창1:19)

드디어 창조 넷째 날이 되어서 이제는 첫째 날 모은 가시 광선의 빛 대신 발광체인 태양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따라서 하루(day)도, 계절(season)도, 년한(year)도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그 위치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우주에 관한 성경 말씀은 창조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 잘 설명되어 있다. 또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오늘 날 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엄격하게 그대로 적용되고 또 지켜지고 있다. 누가 낮(day)과 밤(night)을 정

하였나? 누가 물을 나누어 궁창을 만들었으며, 누가 물을 모으고 바다를, 또 육지를 조성하였나? 누가 계절(seasons)과 일자(day)와 연한(year)을 정하였나! 그리고 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자연주의가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은 명료한 답을 제시해 준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롬1:20) 그러므로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 창조의 흔적을 드러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알게 되고 이를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글은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우주 창조에 대한 개관을 소개하였다. 창조 사건 하나 하나와 모든 순서가 완전하고 이치가 맞고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다. 여기에 소개된 본문을 중심으로 앞으로 그 내용들을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 40:26)”



이동용 박사
항공우주공학

AFTER EDEN

by Dan Lietha

143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20

ACT News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지난 5/28-6/3 전북 진안에 위치한 이랑학교(교장 정용갑)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이랑학교는 격년마다 참석해왔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중고등 대안학교인 이랑학교는 고등학교 1, 2학년생을 맞이하면 창탐에 참석합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면서도 미국이나 한국의 많은 기독교 학교가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일반 학교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은 진화론을 진리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랑학교의 과학 교사들도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하는 ITCM에서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에서 벗어나 창조과학을 기초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랑학교와 같이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독교 학교와 대안학교가 이와 같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됨을 통해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뉴욕인투교회

지난 6/4-9 뉴욕인투교회(담임목사 심상현)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뉴욕인투교회는 주로 젊은 층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참석자들도 대부분 젊은 층들이었습니다. 첫 날부터 활발한 질문들이 오갔고, 하루하루가 지날 때 마다 참석자들은 성경 말씀과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성경적 사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창탐이 오늘날 젊은 세대가 성경으로 돌아서게 하는 귀한 도구임을 공감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햇볼트리니티 CEO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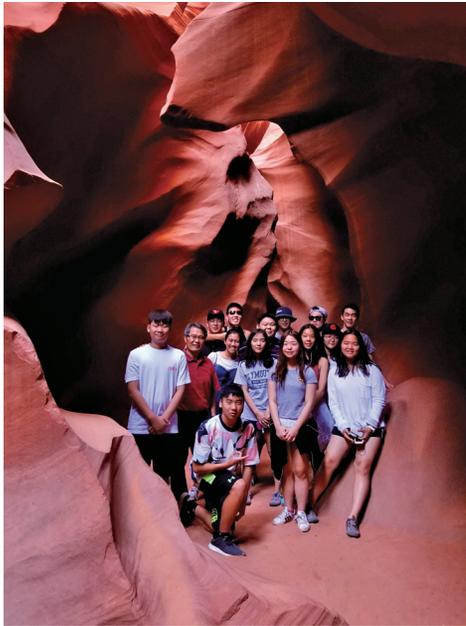
지난 6/11-18 햇볼트리니티 CEO스쿨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CEO 스쿨은 격년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8일간 서부 전역을 돌며 창조와 홍수에 이어 빙하시대까지 다루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적 증거를 접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타협이론으로 인해 다음 세대가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합동신학교

지난 6/19-23 합동신학교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2년전 합동신학원 교수 창탐이 진행된 이래로 매년 신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고, 특별히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과, 최근 등장한 타협이론에 대해



여 관심을 갖고 다루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앞으로 사역을 할 신학생들이기에 자신들이 진화론에서 벗어나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 뿐 아니라, 이 세대가 얼마만큼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이 세대에 게 접근해야 할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합신 창탐이 400회라서 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에일장로교회

뉴욕에일장로교회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김선옥 박사의 인도로 진행된 뉴욕에일장로교회 탐사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투어이며 8세 아이부터 71세 어른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모두가 그랜드 캐니언과 자이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의 멋진 광경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투어에는 앤텔롭 캐니언과 홀슈밴드에도 다녀왔습니다.

이번 투어를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삼버그 침례교회 창조과학 학교 종강

지난 6월 27일, 시카고 삼버그 침례교회에서 이동용(Thomas Yi) 박사가 인도한 제22기

창조과학학교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31명이 참가, 23명이 10주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이 성경대로 행하신 말씀의 증거들을 나누고 성경은 순수 과학적 사실들과 충돌이 없음을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김광섭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홍순(EM)과 이정훈 두 목사님들이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버그침례교회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10기 ITCM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2월16일까지 8주간, 미국 엘에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청장년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 (www.HisArk.com About Act)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훈련 내용 : 성경-과학-사역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창조과학탐사와 세미나 및 필드 트립에 참여합니다. 또한, 성경 공부와 도서 읽기, 프리젠테이션 및 토의 활동 등을 통해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창조론을 배웁니다. 이런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이 전하는 기원 역사와 복음에 대해 선한 증거를 얻게 되며, 창조과학을 도구로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지식과 실제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ITCM 지원 방법

1. 신앙고백: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 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부
 2. 본인 소개서 1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3.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4. 추천서 1부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위 4가지 지원 서류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앙고백과 본인소개서 양식은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해 주십시오.
-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10명 이하로 선발합니다.

보내실 곳 : 조희천 heechecho@gmail.com ITCM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훈련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Marvel DNA 1 – ‘Junk DNA는 없다. 정말로!’



그림 1

생명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53년에 Nature 지(그림1)에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생명의 유전정보라고 알려진 DNA의 3차원 구조가 이중나선형(double helix)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히며, 이 DNA가 자신의 이중나선형을 풀면서 자기복제(replication)의 메커니즘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다(그림 1). 특히, 이 논문의 중요성은 생명분자인 DNA가 기존의 다른 생체 고분자들이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구조인 이중나선형으로 이루어졌음을 최초로 밝힌 데 있다. 보통의 생체고분자들은 한 사슬의 긴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인데, DNA는 처음부터 이중나선형의 긴 사슬구조로 존재하며, 이러한 이중나선형은 부분적으로 풀리면서 다른 단일사슬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자신과 같은 이중나선형의 DNA를 복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DNA가 결국에는 생체의 주요한 생물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들을 생산하는 원천물질인 유전정보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획기적인 논문의 발표이후 모든 생명과학연구는 그러면 ‘어떻게 DNA가 그 유전정보를 복제하고 전달되면서, 생물체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의 생체내의 모든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따라서, 이후에 수십 년 간의 동시다발적인 세계적인 연구그룹들은 DNA가 자기복제를 통해서 증폭되며, 또한 DNA는 RNA 라고 불리는 단일사슬로 DNA의 염기배열의 순서대로 전사(transcribe)되고, 이 RNA가 그 염기배열에 따라 특정한 구조의 단백질을 생산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 즉 세포내에서 어떻게 DNA라고 하는 유전정보물질이 전달되고 발현 되어서 생체기능을 나타내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지의 원리를 밝혀낸 것이다.

그 이후 인간유전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위해서 1990년도부터 13년간

3조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인간 유전체(genome) 게놈, 개체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genes)의 집합 전체의 염기배열정보를 밝혀낸 후먼게놈프로젝트의 연구결과가 2003년도에 Nature 지에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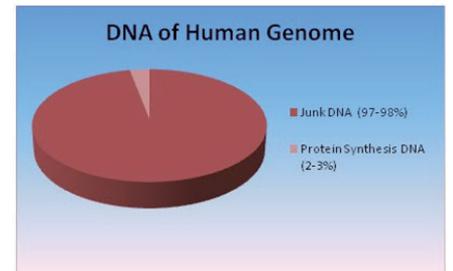


그림 2

인간유전체의 모든 DNA의 염기배열의 순서를 결정하고 이들이 30억쌍의 염기배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었다. 업적도 대단하였지만, 그 연구결과가 매우 의외여서 당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것은 인간유전체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의 염기배열을 연구한 결과 전체 DNA에서 단지 2~3%만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전자 DNA염기배열이고, 나머지 97~98%의 DNA 염기배열들은 단백질로 발현되지 않고, 아무런 기능이 없는 DNA 염기배열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었다(그림 2). 인간의 유전자가 단지 2~3% 만 쓸모 있고 97~98%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정보가 단백질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의미한 정보 덩어리인 것으로 발표된 셈이다.

이것은 인간 유전자의 엄청난 복잡적 기능을 예측하였던 당시의 학계의 분위기에선 분명히 충격과였다. DNA의 염기배열의 순서가 정보라는 면에서 당시의 발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 DNA의 염기배열의 정보가 단어적 의미를 내포한 문장적 정보로 가정해서, 위와 같은 발견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만약 ‘Junk DNA는 없다. 정말로!’란 문자적 정보가 인간유전자의 정보라면, 2003년 인간유전체 프로젝트 결과는 의미 있는 위에 문장정보가 단지 2~3%의 부분에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 의미 없는 문자쓰레기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그림 3). 마치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적혀 있는 책이 있다면, 이 책은 의미 없는 쓰레기 정보로만 가득 찬 책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단지 15개의 정보를 담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되었다면, 정말 그 책의 정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로 가득 찬 쓰레기(JUNK)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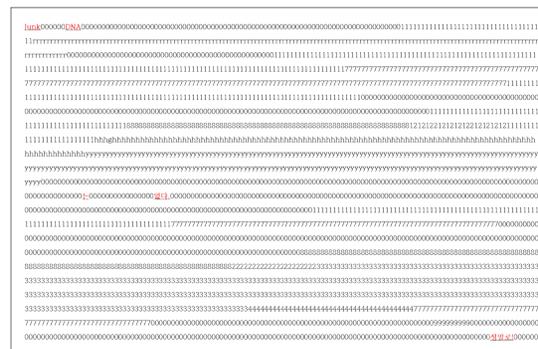


그림 3



정선호 교수
건국대 시스템생명공학과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전체를 믿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면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누군가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고히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잘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조한주<울산새중앙교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항상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과 눈을 뜨게 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재만 선교사님의 열정적인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현수<인천광음교회>

감동! 감동! 감탄! 감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처음이 가장 좋다. 전능하시면서도 좋으신 분. 사실이신 분. 성경이 사실이며 현실임을 진

정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어서 더 더욱 감사하고 은혜 그 자체 입니다. 오직 처음 이신 예수님만 전해 주시고 현실이 되는 성경말씀만 전해주시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숙<인천광음교회>

아들이 진화론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 항상 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더욱 더 깊이 연구하고 가르쳐야 함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서 진화론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인옥<울산 2기 건강스쿨>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진화론의 틀에 갇혀 교육을 받고 진화론 세대로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패러다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용수<인천광음교회>



창조과학탐사를 갑작스레 준비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 드립니다. 모든 일정들, 강의들을 통해 저의 교만한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과 기도를 힘쓰게 하시고 내 신앙의 깊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아이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파 하실까 하는 생각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 고자 합니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김은옥<군산동부교회>

직장을 다니면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태에서부터 믿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번 탐사를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자녀와 성도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꼭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조수정<고성제일교회>

2018 ACT Schedule

7/30-8/2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 EM), Bill Hoesch
8/4-6	창조과학탐사 (University Bible Fellowship), Bill Hoesch
8/9-16	창조과학탐사 (두암중앙교회), 이재만
8/16-25	창조과학탐사 (전주동은교회), 이재만
8/28-31	창조과학탐사(성남영도교회:양영승), 이재만
9/5-9/8	창조과학탐사(시애틀형제교회), 이재만
9/20-26	창조과학탐사(안산동산교회), 이재만
10/4-10/11	창조과학탐사(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15-10/21	창조과학탐사(광주성암교회), 이재만
10/22-10/31	창조과학탐사(과천약수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